



특허청 *희망의 새시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www.kipo.go.kr



경제혁신
영역
3개년 계획

정부 3.0

보도자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 장 이선우 042-481-8254 사무관 박찬숙 042-481-8248
	2016년 1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월 7일(목) 오후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기초·원천기술개발 전쟁, 특허전략으로 대비한다

- 특허청, 기초·원천연구 분야 주요 과학자들에게 특허 컨설팅 지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기초·원천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주요 과학자들이 세계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3개 연구단*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향후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IBS 신희섭 박사),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석복 교수), 나노입자 연구단(서울대 현택환 교수)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는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 해당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초·원천기술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2011년 11월 IBS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6개 연구단을 선정하여 '16년 2,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비하여 기초·원천기술 연구 분야는 그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연구논문이 사전에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온라인으로 공개

되어 특허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2014년 말 시범적으로 IBS 소속 3개 연구단*을 대상으로 특허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전략(분쟁 대응, 해외출원 등)과 산업적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각 연구단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26개 연구단 중 특허이슈가 많은 연구단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KAIST 유룡 교수),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POSTECH 김기문 교수),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KAIST 김은준 교수)

특히 이번 지원과정에서는 특허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IBS 등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기초·원천 연구 분야의 주요 과학자를 추천받았으며, 특허컨설팅 수요조사, 특허전략 세미나 및 특허교육, 현장진단 등을 공동 실시하였다.

이번 최종 지원 대상이 된 3개 연구단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권리화가 미흡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용화기술 뿐만 아니라 기초·원천기술일수록 특허권으로 잘 무장하여야 한다.”라며, “특허청에서는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주요 과학자들이 지식재산권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IP-R&D)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14년 시범 지원(3개 연구단) 주요 성과

복잡계 자기 조립 연구단 (포항공대 김기문 교수)	① 보유특허가 호주 경쟁연구단의 특허와 상호 분쟁발생소지가 있어 크로스라이센싱 전략 제시 ② 개발 물질의 상업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연구진행 중이었으나, 물질의 효능과 특성을 토대로 화장품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 ☞ 국내 화장품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중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KAIST 유룡 교수)	① 신규 화합물 관련 특허(20건)는 권리범위가 좁은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물질'로 기재, 권리범위가 넓은 '특정 용도의 물질'로 출원전략 변경 제안 * (기존) 공정 A, 공정 B를 통해 생성된 물질 M → (개선) 특징 A이면서, B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 M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KAIST 김은준 교수)	① 신약개발이 가능한 원천기술이나 국내·미국특허만 확보, 글로벌 제약사가 포진한 유럽특허 미확보 ☞ 후속연구는 유럽 등 해외권리 우선 확보 제안 ② 연구 중인 일부 유전자의 특성은 다수의 선행특허에 이미 공지되어 연구방향 차별화 및 변경 제안

□ 2015년 선정 연구단 지원 필요성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 신희섭)	- 원천기술의 국내특허는 청구범위가 포괄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으나, 해외출원은 협소한 권리범위를 가져 <u>해외특허의 포트폴리오 보강전략 필요</u> - 향후 R&D 방향 및 응용연구를 위한 <u>IP-R&D 지원을 강력히 희망</u>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한국과학기술원 장석복)	- 국내특허출원 대부분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로 <u>원천기술에 대한 권리화가 미흡하며, 해외특허 출원 전무</u> - 연구노트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차가 큰 상황 - 논문검색 위주의 선행기술조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검색, 특허분석 등의 경험이 없어 <u>전반적인 특허 관련 지식이 미흡</u> - 기초과학 연구실의 특성상 <u>연구에 대한 특허전략이 부재한 상황</u> 으로 <u>IP-R&D 전략지원이 시급한 상황임</u>
나노입자 연구단 (서울대학교 현택환)	- 암진단·치료용 나노캡슐기술과 나노물질을 이용한 차세대 자기 저장매체 합성에 관한 <u>원천기술을 보유</u> - 전세계 6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활동이 활발하고 논문공개 전 특허출원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등 <u>전반적인 IP관리 양호</u> - 신규 응용분야 탐색과 기술이전 대상발굴에 관심이 높고, <u>IP-R&D 참여를 희망</u>